500사찰-불우이웃 '결연'

조계종 부처님오신날 맞아 '자비의 손길' 펼쳐

조계종총무원은 올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500개 사찰에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장애인가정과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사회부는 12일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손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사찰이 관내의 어려운 이웃 10가구와 결연을 맺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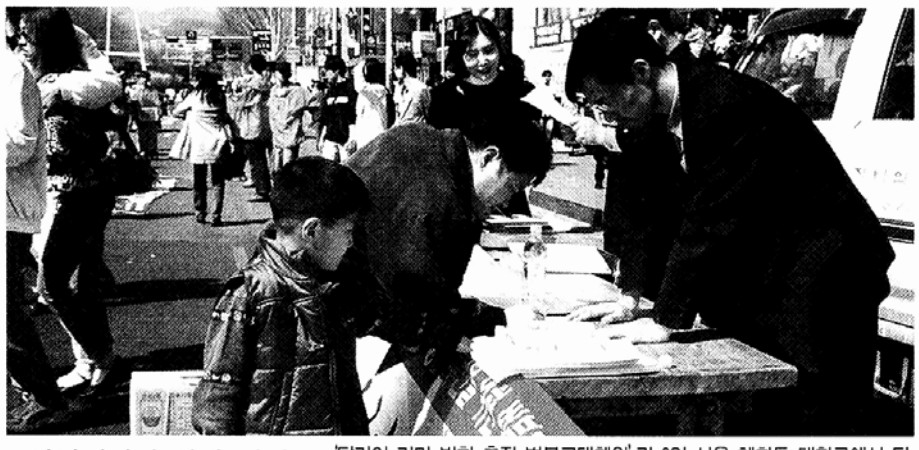
이를 위해 중앙종무기관에서 종로구 관내 10개 가정과 결연을 맺고 매월 생활보조비를 보태주기로 했다. 이미 10개 가정을 선정했으며, 총무원 6개 부서와 교육원 포교원 종회사무처 복지재단에서 1개 가정을 후원하기로 했다. 27일 첫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결연을 위해 후원금 전달에만 머물지 않고 방문 및 초청 등의 행사를 다양하게 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대해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모든 종무원이 급여에서 매월 4000~10000원씩을 모금해 재원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결연 사업과 함께 이번 초파일을 맞아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교육원장 포교원장, 각 부서장이 관음대비원과 둥지청소년의집 제천자애인복지관 국립재활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 성금을 전달키로 했다.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부처님오신날부터 올 상반기까지 500여개 사찰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며, 올 한해 동안 '자비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산스님은 또 이미 많은 사찰에서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며 각 사찰의 결연사업을 취합해 자비문중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봉축위원회는 15일 각 사찰에 '자비의 손길' 안내자료집을 발송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지지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범불교대책위'가 8일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달라이 라마 방한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1일 달라이라마의 일본 일본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총통 당선자도 20일 거행도는 취임식에 달라이 라마를 공식 초청, 달라이 라마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김재경 기자〉

타종교 배우는 열린 시민대학

부산 종교인모임 5월 18일부터 목요강좌

부산의 젊은 성직자들의 모임인 부산열린종교인모임이 열린종교시민대학을 개설하고 종교의 벽 허물기에 나섰다.

부산열린종교인모임(상임대표 심산스님)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5월 18일 통도사부산포교원 화엄회관에서 열린종교시민대학을 연다.

6개월 과정의 열린종교시민대학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불교 순으로 한 종교당 4주 강의와 한 주 특강으로 진행된다. 교과과정은 각 종교별로 1주 종교의 문화, 2주 창시자의 생애, 3주 기초교리, 4주 말씀과 삶(신행), 5주 특강의 순으로 마련되어 열린 종교, 열린 실천을 이끌어내게 된다. 또 각 종교의 의식과 신행형태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해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5월 18일 열리게 되는 첫 강의는 정진홍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의 '새천년의 종교 의식'이라는 주제 강연으로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종교의 방향성을 찾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열린종교시민대학의 운영은 5개 종교가 함께 한다. 통도사부산포교원 심산스님을 상임 운영위원으로 송영웅 풀빛교회 목사, 박칠 송도교구 천도교 포덕사, 윤희중 해운대 나눔의 집 사관이 각각 운영위원을 맡아 공동의 책임하에 종교의 궁극적인 합일점을 찾는 시민대학으로 운영해 나가게 된다. 또한 허평길 부산대 철학과 교수를 비롯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강의 내용, 교과과정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열린종교인모임은 30-40대의 젊은 성직자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사랑의 트라이앵글 모금운동과 '구원과 깨달음'이라는 주제 토론을 열어 관심을 모아왔다.

학장 심산스님은 "종교갈등은 타종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며 "타종교에 대한 편협된 생각을 버리고 각 종교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대학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051)816-2241.

부산=천미희 기자

◇정토회 회원들이 정토법당 원장 유수스님의 지도로 관음정근을 하며 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있다

통일기원 100일 정진 '후끈'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분위기 고조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일과 이산가족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1일 발족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1000일정진불교연대)의 수행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소식이 알려진 10일 저녁, 1000일정진연대의 주관단체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3월1일부터 40일째 '민족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번 1000일 철야정진은 불자 한 사람이 통일을 위해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동포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끝내고 민족통일의 서광이 비치는 2천년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달 혹은 1백일, 6개월, 심지어는 3년간 하루 1시간씩 꼭 기도하겠다는 원을 세운 사람들이 앞서 주었고, 목탁을 치며 관음정근을 신심나게 하고 있었다. 매일 30명 이상이 동참해 벌써 1400여명이 기도정진에 동참하고 있다.

"2010년까지 통일을 이루는데는 앞으로 1000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법륜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릴레이 정진은 1000일정진불교연대의 핵심사업으로 2002년 11월26일까지 진행되며 전국민의 동참을 바라는 뜻에서 1시간씩 교대로 이어진다.

정토회는 또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동포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통일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 기금조성을 위해 시민들에게 나눠온 돼지저금통은 '통일 돼지'로 명명돼 이미 1500여명이 받아갔다.

1000일 정진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불교신자와 일반 시민들이 통일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통일강좌'도 실시된다. 정부 당국차원의 통일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박노해시인, 장정구(동국대)교수 등이 강사로 나와 강의하고 열띤 토론도 벌였다.

정토법당 원장 유수스님은 "1000일 기도정진은 신행운동이자 민족돕기운동이며 통일운동"이라면서 "통일 이후의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자 모두가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이루는 원력보살이 되자"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승가고시 강화 자격검증 시험으로

조계종 4급 승가고시가 강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그동안 구족계 받기전 형식적으로 치뤄졌던 승가고시를 검증위주의 자격고사로 바꿔 승가의 자질향상 및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4급 승가고시는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및 강원을 졸업한 사미·사미니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된다.

교육원은 5월 말 승가고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승가고시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21일 열리는 교육원 회의에서는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추진 보고 △국·내외 장학승선발 △종비생 추천제도 개선의 건 등을 논의한다.

김원우 기자

불교TV파산 초읽기

빌딩주 경매신청 노조 "이달말까지 방송"

경영위기에 놓인 불교TV가 10일 금오전기측에 의해 건물 명도소송과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에서는 경영난 타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진짜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금오전기는 밀린 임대료 10억여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불교TV를 상대로 3월 23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 사무소에 경매 신청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불교TV 노조는 이미 지난주에 회사 구제 방안으로 '체불임금 지급 청구'를 명목으로 한 방송기기 차압을 신청해, 금오전기측이 일단 경매 집행을 연기한 상태다.

만약 금오전기가 경매 집행을 강행한다면 노동법상 약 8억여원인 불교TV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8억5천만원으로 감정 평가된 방송기기를 경매하고 나면 자신들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오전기는 지난해 9월부터 건물 철거 명도소송을 신청해 놓고 있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직장퇴거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윤상호 불교TV 노조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경영진에서 처방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방송을 중단하고 노조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송출 중단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달 말 경으로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서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파산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는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이수덕부사장은 "금오전기 부사장과 만나 명도소송 집행을 이달말 이사회때까지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계속해서 이사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산 신청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해 사태가 급박해졌음을 내비쳤다.

현재 총 30여명의 이사중 불교총지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계속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어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이에 대한 교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초파일 위문품보내기

군불교진흥회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군장병 불자들에게 위문품 보내기 운동계획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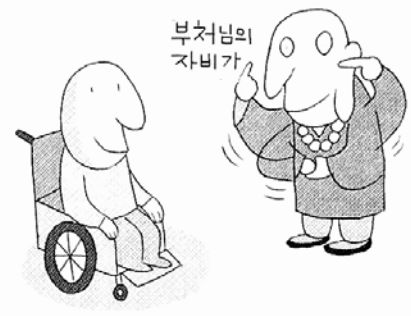
군불교진흥회는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합장주, 〈진언집〉〈삼세인과경〉 등의 소책자, 10여종의 과자 등이 담긴 위문품 2만여개를 보내기로 하고 현재 제작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각 종단, 사찰, 신행 단체 등에 후원활동을 벌여 더 많은 위문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5월12일까지 모금을 받고 위문대 포장 행사는 5월7일, 위문품 전달식은 5월10일에 개최한다. 위문품은 군법사가 없는 700여 법당에 우선 500개씩 전달하고, 이어 전방과 군법당 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하면 군장병 앞으로 위문품을 보낼 수도 있다. (02) 749-5135.

강지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불기 2544년 부처님오신날

불교 음악의 향연

봉 2000 광주·전남 불교 합창 예술제 축

사생자부하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무명속에 헤며이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사바 세계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음악의 향연을 사부대중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4월
광주불교 사암연합회
회 장 **천 운** 합 장

▶ **일시** : 2000년 4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주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관** : 광주 전남불교 보리살타 연합합창단
▶ **후원** : 광주불교사암연합회합창단, 백양사합창단
향림사합창단, 증심사합창단, 한마음선원혼성합창단
▶ **협찬** : BBS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북지사

문의전화 : 062) 375-9986

1부
· 증심사합창단
· 향림사합창단
· 사암연합합창단
· 백양사합창단
·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

우정출연
· 광주불교 소년 소녀 예술단
· 정광고등학교 "댄들" 팀
· 광주원불교 합창단
· 한마음선원 거사림합창단

2부
· **합 창 : 보리살타 연합합창단**
· 지휘자 : 김선주
· 반 주 : 김재섭 외 12명 (도드리 국악 실내악단)
· 석가세존
· 초파일송가
· **붓다** (탄생, 고독, 유관, 출가)

※ 입장은 무료입니다.